

유명 제과업체에 “독극물 넣겠다” 협박전화

범인 검거, 업체 피해 최소화 위한 공동 대책 시급

지난 1월 5일 11시경 인천에 위치한 P제과업체에 돈을 요구하며 ‘독극물을 넣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 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이후 3일이 경과한 지난 1월 8일, 유명 식품회사에 여러 곳에 같은 내용의 협박 전화를 건 범인을 검거했다. 범인은 1998년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 동일 범행으로 출소한 지 10일 된 40대 후반의 남자였다.

범인은 검거됐지만 협박을 받은 P업체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 협박을 받은 당일 이미 매장 영업을 중단하고 진열상품부터 재고 물량까지 모두 폐기처리했다. 이에 따라 범인 검거 전 3일간 영업을 하지 못한 데 따른 손실분은 물론이고 상황이 종료된 이후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금지됨으로써 1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입은 타격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수치다.

P업체 관계자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업체를 보호해 줄 만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안타깝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실제로 이 업체는 모 보험회사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이번 같은 경우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결국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감당하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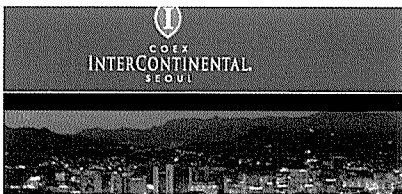
업계에서는 “고객의 안전과 직접 관련돼 있는 제과업체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만한 제도를 공동의 힘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P업체 관계자 또한 “관련 보험 계약을 제과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제도적 안건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시급하다”며 공동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미선 기자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델리봉봉’

국내최초 자일리톨 이용한 제품 출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제과점인 ‘델리봉봉’에서 국내 최초로 자일리톨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해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자일리톨은 지작나무, 야채, 과일 및 곡류 등에 존재하는 성분으로 단맛은 있지만 당분은 전혀 없는 천연 감미료이다.

델리봉봉에서는 마핀, 호밀빵, 케이크, 무스 등 여러 가지 제과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가격은 2천 원대에서 5천 원대까지 다양하다. 제품에 사용되는 핀란드산 자일리톨은 설탕보다 40배나 강한 단맛을 지녀 조금만 사용해도 된다.

허윤정 기자

조선포텔 전 직원 금연운동 참여

‘금연 펀드’ 조성, 선물 지급



조선포텔이 지난해 여름 시작한 ‘6개월 금연 캠페인’의 결과를 올해 초 테스트해 성공지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금연 운동에 나섰다. 모두 50명의 직원이 참가한 이번 캠페인에서 중도 포기자를 제외한 최종 후보는 37명으로 이 중 1차로 테스트를 받은 9명 중 8명이 합격했다. 조선포텔은 앞으로 이 운동을 조선포텔 베이커리 사업부 직원도 함께 참여하는 쪽으로 진행할 것으로 밝혔다.

앞으로 금연에 성공한 직원들은 호텔측에서 조성한 ‘금연 펀드’를 통해 선물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달간 금연하면 케이크를, 3달간 금연하면 고급 와인을 직원들에게 선물했다.

허윤정 기자

서울프라자호텔 ‘델리 프라자’

발렌타인데이 특별 제품 선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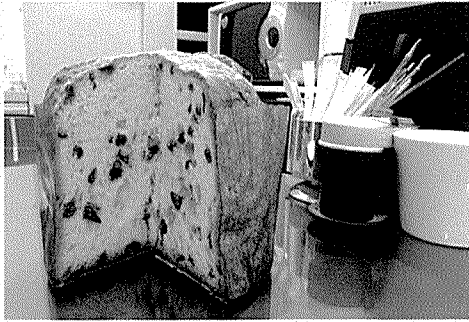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서울프라자호텔의 ‘델리 프라자’에서 특별메뉴를 제작, 판매한다. 2월 5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한정적으로 판매되는 이들 제품은 모두 발렌타인데이 어울리는 초콜릿과 생크림 등의 재료를 이용한 것

델리 프라자에서 선보이는 제품은 치즈 무스 케이크, 블랙 포레스트 케이크 등의 케이크류와 수입 초콜릿, 캔디 등의 선물 세트이다. 케이크는 2~3만 원대, 초콜릿은 1~3만 원대(세금, 봉사료 별도)의 가격이 주류를 이룬다.

허윤정 기자

이탈리아 고급 파네토네 국내 시판 확대 호텔 중심으로 확대, 인터넷 쇼핑몰 판매도 개시



(주)나이스커피시스템에서 수입하는 이탈리아 로이손사(Loison)의 파네토네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5월 국내 처음으로 수입된 이 제품은 기존의 파네토네와는 차별화되는 품질로 고품격 전략을 펼쳐왔다. 이 제품은 우유천연효모, 와인천연효모, 치즈를 이용해 만든 것으로 7개월에서 1년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파네토네가 일주일이 넘으면 노화로 인해 딱딱히 굳는데 반해 이 제품은 보관 기간이 1년 정도이며 숙성 과정을 거쳐 맛이 좋다'고 업체 관계자는 설명했다. 최저 3만2천 원에서 최고 9만9천 원으로 고급 선물용과 카페 사이드 메뉴로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호텔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 판매를 시작했다.

김영주 기자

쌀 소비량 매년 가파른 하락세

'밥보다 빵' 좋아하는 경향 늘어

국내 쌀 소비량이 매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83.2kg으로 2002년(87kg)보다 4.4%(3.8kg)가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1가구당 빵과 과자를 구입하는 데 들인 비용은 지난해 월평균 2만3천 원으로 전년에 비해 20% 가량이 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직까지 대만(50kg)과 일본(64kg)에 비해 많은 편이지만 서구화된 식습관이 자리잡은 이래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허윤정 기자

KBN(주), 제과점 고객관리 서비스 실시

이메일 등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 서비스

KBN(주)에서 제과점 고객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고객관리(e-marketing)는 이메일(e-mail), 이

카드(e-card),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점포 소개는 물론 제품과 행사 소식을 고객에게 발송하는 마케팅 방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KBN(주)는 제과점에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한다. 비용은 19만8천 원

문의 : 02) 749-2033

김영주 기자

'해피' 우유, 아이스크림 영국서 첫 선보여

영국 BBC 인터넷판 보도, 건강식품 시장 확대 전망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이른바 '해피' 우유와 아이스크림이 영국에서 첫 선을 보였다고 영국의 BBC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레드키티팜프츠사는 '해피' 우유에는 시차 피로를 회복하는데 효과적인 젖소 분비 호르몬 '멜라토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멜라토닌'은 시차 피로 해소 보조제로 널리 이용되고 있어 우유에 멜라토닌 함량을 늘리면 시차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우유 생산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에서는 멜라토닌 함유량을 최대한 늘리

기 위해 젖소가 충분한 잠을 잔 뒤인 새벽에만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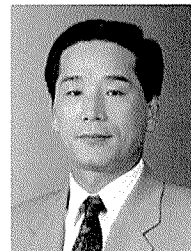
스코틀랜드의 맥키즈에서 선보인 '해피' 아이스크림은 난초 추출물을 첨가한 제품으로 '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진다'고 설명했다.

BBC는 이와 같이 스트레스 제거 효과를 가진 성분을 포함한 초콜릿과 비스킷도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전하며 건강을 생각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 감소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주 기자

(주)파리크라상

신임 대표이사 조상호 부사장 취임



지난 1월 1일 (주)사니 대표이사 조상호 부사장이 (주)파리크라상의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경남 밀양 출신인 조상호 부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태평양생명보험 관리 담당 이사, 태평양그룹 기획조정실 상무이사, (주)사니 대표이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올해부터 (주)사니와 (주)파리크라상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조상호 부사장은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증까지 겸비한 세무 행정 전문가이다.

김미선 기자

바로 잡습니다



*12월호에 기재된 서울국제빵·과자전 공예과자부문 초콜릿공예과자 동상 작품(현정섭) 사진을 정정합니다. 12월호에 기재된 사진은 김찬배 씨(케익뱅크) 작품입니다.

*1월호 <피플> 신말식 교수의 근무지를 '전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로 정정합니다.

김영주 기자